

조선 후기 同鄉契會帖과 『三清洞道會圖帖』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nghyang-Gyehoecheop and *SamcheongdongDohoedocheop* in the late Joseon Dynasty

최 경 훈 (Choi, kyung-hu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전존본 현황 |
| 2. 契會帖의 제작과 同鄉契會帖 | 3.2 제작과 전승 |
| 2.1 契會帖의 제작 | 3.3 수록 내용 |
| 2.2 계획도 수록 同鄉契會帖 | 4. 맺음말 |
| 2.3 계획도 미수록 同鄉契會帖 | <참고문헌> |
| 3. 『三清洞道會圖帖』의 제작과 내용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同鄉 출신 관원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동향계회첩의 현황과 제작배경, 전존방식 등에 대하여 『三清洞道會圖帖』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동향계회첩은 1598년의 『七松亭契會圖』부터 1656년의 『終南同道會題名錄』까지 주로 17세기를 중심으로 원본, 모사본, 문헌 편입의 방식으로 전존본 7종 22점이 조사되었다. 『三清洞道會圖帖』은 영남 출신 관원들이 사마시 합격 동향 출신을 축하하기 위한 삼청동에서의 모임 후에 제작된 것이다. 同鄉契會의 배경은 동향 간 친목을 위한 것이었으나, 과거 합격자 환영 등 직접적인 배경도 확인되었다. 계회첩의 제작은 모임 참석자 1인을 선정하여 맡겼고, 비용은 참석자가 공동 분담하였다. 참석자는 문관 5품 이하 실무자급 관원 중심이며, 출신지는 고령과 영주 사이의 낙동강 주변 고을이 많았으며, 父子·형제가 대를 이어 참석하여 특정 가문이 同道會를 주도해 가는 현상을 보였다.

要語: 동향계회, 삼청동도회도첩, 영남동도회, 계회첩, 계획도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Donghyang-Gyehoecheop (the brochures to commemorate a fraternity association gathering of officials from the same region) focusing on the *SamcheongdongDohoedocheop*, in Choseon dynasty. There were 7 kinds 22 items of Donghyang-Gyehoecheop from 1589 to 1656 in the manner of the original, copy, or inclusion in the literature. *SamcheongdongDohoedocheop* was made after officials held a meeting to celebrate successful candidates from Gyeongsang-do passed the Samashi in 1654. The background of the meetings were for friendship, but there were also specific reasons, such as the welcome of thos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s. The Gyehoecheop were produced by selecting one of the participants of the meeting, and the cost was shared by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hometowns were mainly villages around the Nakdonggang River. Fathers, sons, and brothers attended the meeting for generations, certain families have taken the lead in the gathering.

Key words: *SamcheongdongDohoedocheop*, YoungnamDongdohoe, Gyehoecheop, Gyehoedo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 사서(lilimo95@daum.net)

투고일: 2020년 8월 19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6일
서지학연구, 제83집, 173-199,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173>

1. 머리말

우리나라 고문헌을 보면 대부분 단색을 사용한 문자 중심의 기록물로 외형적으로 단조롭다고 할 수 있다. 문자 이외에 그림이 판각되거나 그려진 사례는 불경 변상도, 행실도, 도설·도해, 산도·사당도, 초상, 계획도, 지도 등 서적의 삽화 형식이 대부분이며, 고문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고문헌 수록 그림(판화)은 시각적 수단으로 함축된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서적 편성 방식의 하나이면서 고서화의 한 영역이기도 하여 고문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조선시대 계획은 문인 관료층을 중심으로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모임이며,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획첩을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다. 계획첩은 참석자 명단을 기본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 계획 장면을 그린 계획도, 창작 시문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계획도는 목판에 판각되는 간본의 형태보다는¹⁾ 원본의 채색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어 예술품으로써의 가치도 가진다. 비록 계획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첩은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되어 제작된 것이며, 참석자 명단, 서·발문, 창작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인연을 기념하는 징표로 참석자 수만큼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임과 기념 책자의 제작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영역이다.

계획첩에 대해서는 계획 장면을 그린 계획도가 17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그려졌고, 첩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으므로 미술사 분야에서 우선 주목하였다. 고유섭이 『朝鮮畫論集成』에서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계획도를 수록·소개하였으나 1970년대 안회준의 연구²⁾가 계획도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 박은순, 이원복, 박정혜, 이태호 등의 연구가 축적되었고, 윤진영의 연구³⁾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다.⁴⁾ 이후 문중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도가 알려짐에 따라 개별 계획도 또는 지역·유형별 계획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사 분야의 연구는 계획도를 대상으로 회화적 가치가 있는 同官·同榜契會·耆老會圖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미술사 분야 이외에 서지학 연구 분야에서는 1639년 사마시 합격자 가운데 洪鍾韻 등 3인이 1656년 영암에서 계획을 가진 후 제작하였던 『己卯司馬同年契帖』에 대하여 형태 서지와 내용을 분석한

1) 1634년 황해도 황주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그림과 함께 원접사 23인의 좌목이 있는 『黃岡延詔圖』는 당시 봉산군수로 참여하였던 도경유(1596-1637)의 목판본 『洛陰文集』에 판각되어 수록되어 있고, 김평필 등 5인이 1480년 가졌던 『情志交孚契』는 함께 참여하였던 송석충의 문집인 『訥翁先生遺事』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집에 수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원본 또는 원본을 후대에 다시 그린 형태로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원본도 성주도씨 문중(병암서원)에 2부가 전하지만, 후자는 원본이 없다.

2) 안회준,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小考,” 『역사학보』 65집(1975), 117-123.; 안회준, “16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미술자료』 18집(1975), 36-42.; 안회준,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문예출판사, 1988).

3)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2004). 윤진영은 이 연구를 통해 그림이 있는 계획도를 종합하면서 부록으로 동관·동방·도감계획도 등 182개의 계획도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동향계획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홍선표, “조선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36집(2013. 8), 7-31.

연구⁵⁾가 있으며, 한문학 분야에서는 영남동도회(1634)에 참여하였던 강대수의 교유관계에 대하여 『嶺南同道會帖』 수록 인물과 詩를 통하여 살펴본 연구⁶⁾가 있다.

계회첩에 대한 선행의 연구는 전존 수량이 많고, 회화적 가치가 높은 同官契會圖나 同榜契會圖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계회 가운데 동향계회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한 분의 스승 아래에서 동문수학한 학연과 혼인으로 연결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관직 진출을 통한 治國平天下를 꿈꾸며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계회가 과거 합격을 계기로 같은 시험 합격, 같은 관청 근무, 같은 행사 참여 등으로 인연이 시작된 것과는 달리 동향계회는 과거 합격 이전에 이미 개인이 아니라 학연(학문)과 혈연(가문) 차원에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관직에 진출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 인연은 낙향 이후에도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후손까지 지속되는 특별한 관계였다. 그러나 동향계회첩에 대해서는 2013년 한국국학진흥원의 특별전 도록에 수록된 논고에서 계회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면서 비로소 소개되었다.⁷⁾ 윤진영은 전시회 출품 자료 가운데 1860년대 제작된 『豐山金氏世傳書畫帖(이하 世傳書畫帖)』의 『七松亭同道會圖(1598)』, 학사 종택과 병곡 종택에 각각 전하는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설월당 종택의 『寶帖(1654)』 등 3종 4점을 소개하면서 계회의 또 다른 유형으로 새롭게 동향계회를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寶帖』은 2009년 계명대에서 개최된 <朝鮮의 名案>이란 전시회에서 후대 摹寫本으로 소개된 『三清洞道會圖帖』의 원본이 되며,⁸⁾ 근래에 개인 소장자의 또 다른 원본인 『三清洞道會畫帖』이 새롭게 알려짐에 따라 『삼청동도회도첩』에 대한 제작 배경과 전승 과정, 계회첩을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동향계회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동향계회첩에 대한 기존 연구가 그림이 있는 계회도를 대상으로 한 미술사 분야의 연구였고, 계회도 없이 좌목, 발문으로 구성된 계회첩은 대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상을 확장하여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원본 계회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모사했거나 길이 전하기 위하여 문집 등 문헌에 편입된 사례까지 조사하여 동향계회의 개최 현황, 계회첩의 가공과 전승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한 보완도 요구된다. 또한 계회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보다 동향계회첩 전체를 대상으로 계회의 개최 배경, 편성 방식, 참석 인물, 출신지 분포 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동향계회첩이 가지는 특징과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그림이 없는 동향계회첩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동향계회의 개최와 그 결과 제작된

5) 노기춘, “德谷 洪鐘韻의 『己卯司馬同年契帖』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권 1호(2012. 3), 399-415.

6) 강정화, “寒沙 姜大濬의 同道會帖과 交遊,” 『선주논총』 12집(2009), 75-108.

7)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의 유형과 성격 - 안동 지역의 문중소장 계회도를 중심으로 -,” 『만날수록 정은 깊어지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 124-149.

8) 이 摹寫帖에는 원본에 없는 계회첩의 제작 배경을 설명한 홍여하의 서문과 선조가 참석한 인연으로 모사본을 제작한 경위를 설명한 후손 송홍래의 발문이 있어 계회첩의 제작과 전승의 직접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계회첩의 전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원본과 모사본이 함께 전하는 『三清洞道會圖帖』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계회의 개최 배경, 계회첩의 제작과 전승 방식, 동향계회첩의 특징과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회화적 가치가 높은 계회도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여 조선시대 지방 출신 관료 집단의 동향 계회를 통한 교유와 소통, 계회첩이라는 고문헌의 가공과 전승 방식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契會帖의 제작과 同鄉契會帖

2.1 契會帖의 제작

조선시대 문인 관료의 모임인 계회는 친목을 위한 여흥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과 단결, 동질감 확인을 통한 동류의식 강화, 관원 상호간의 기강과 결속 강화의 기능을 가지며, 관청 소속 관원들의 친목이나 新參禮를 기념하는 동관계회, 평생 지속하는 과거 시험 합격 동기생들 간의 同榜契會와 동갑생간의 同庚契會, 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한 都監 관원들의 모임인 都監契會, 서울에서 관직 생활하던 지방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同鄉契會, 70세 이상 정2품 이상 관직을 지낸 원로대신의 모임인 耆老會, 그 이외의 일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친목 계회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⁹⁾ 모두 나이, 관청, 과거, 고향, 국가 행사 등에 함께 했다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면서 일시적 혹은 평생을 넘어 세대로 이어지는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¹⁰⁾

조선시대 계회도 제작 추이를 시기별로 보면, 15세기는 고려시대 耆老會 계열의 그림이 전승되어 문인계회도의 자리를 잡는 정착기로, 16세기는 낭관급 관원들의 역할로 동관계회의 수적 우세 속에서 다양한 동류의 유형이 생겨나는 유행기로, 17세기는 동관계회도의 제작은 저조하였지만 同榜·同庚, 도감계회가 비교적 활발히 제작되면서 공·사적인 행사를 기념한 계회도와 감상화가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는 다양화의 시기로, 18·19세기는 퇴조와 변용의 시기로 그 흐름이 파악되며, 조선시대 전반기(1392~1700)에 활발히 제작되다가 1700년 무렵을 기점으로 후반기(1700~1850)에는 변모와 퇴조의 경향을 보였다.¹¹⁾

17세기는 이전의 동관계회보다 다양한 계회가 개최되었고, 그에 따라 동향계회첩 또한 다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하는 것은 많지 않다. 현재 동향계회첩은 <표 1>과 같이 문집 등

9) 윤진영(2013), 127-128.

10) 1478년 안동에 거주하던 권곤 등 13인의 모임이었던 '友鄉契', 1613년에 안동 지역의 임자(1552)·계축(1553)생 11인의 모임이었던 '壬癸契會'는 후손이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오고 있으며, '壬癸契會'의 한 사람이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았던 허응길의 후손을 찾는 과정을 2010년 KBS <역사스페셜>에서 방영한 적이 있다. 한훤당 김굉필 등 5인이 1480년에 서울에서 가졌던 계회인 '情志交孚契'는 533년 만인 2013년에 후손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11) 윤진영(2004), 331.

문헌에 편입된 것을 포함하여 7종 22점이 확인되며, 그림이 들어간 것은 4종 8점으로 다른 유형의 계획첩보다 수량이 적다.

<표 1> 동향계획첩 전존본 현황¹²⁾

	명칭	연도	전존 방식(분급자)	그림	좌목 항목	序跋	개최장소 (제작자)	수록 인원	개최배경
1	七松亭同會圖	1598	모사: 世傳書畫帖(金大賢)	○	5	3	七松亭 舊址 [金大賢]	15	친목 (문관)
	七松亭同會錄		모사: 개인	○					
	七松亭同會題名錄		편입: 農臯公逸稿(黃彥柱)	×					
	七松亭同會圖		편입: 西原世稿(郭守仁)	×		1			
2	嶺南同道會帖	1601	원본: 오봉종택(申之悌)	×	5	1	掌樂院 [李好閔]	27	친목 (문·무관)
	嶺南同道會帖		편입: 睡足堂實記(全雨)	×					
	掌樂院契帖		편입: 問月堂集(吳克成)	×					
	掌樂院同道會錄		편입: 漁適集(柳仲龍)	×	2	×			
3	同道會話錄	1612	편입: 慈庵集(姜翼文)	×	7	×	미상	11	친목 (문·무관)
	同道契會錄		편입: 漁適集(柳仲龍)	×		×		10	
	同省會話屏障		편입: 秋潭年譜(尹銑)	×	4	×		11	
4	同道會帖	1634	모사: 折帖本	×	5	2	掌苑署 (姜大遂)	35	사은부사 金榮祖 귀국 (문관)
	同道會帖		편입: 龍溪集(徐忭)	×		1			
	同道會帖		편입: 靑己世稿(沈自光)	×		1			
	同道會帖		편입: 同道會帖諸賢實錄	×		2			
5	契會圖	1637	모사: 聽荷齋(朴檜茂)	○	6	×	미상	15	(문관)
6	寶帖	1654	원본: 광산김씨 설월당(金聰)	○	6	×	三清洞 (權穆)	26	친목+과거 (문관)
	三清洞道會書帖		원본: 개인	○		×			
	三清洞道會圖帖		모사: 계명대	○		2			
7	終南同道會題名錄	1656	원본: 학사 종택(金應祖)	○	6	1	李軫 私家 (金應祖)	12	친목 (문관)
	終南同道會題名錄		원본: 병곡 종택(權搏)	○					
	同道會帖		편입: 龍溪集(徐忭)	×					

계획의 개최 시기는 16세기 후반인 1598년부터 17세기 중반인 1656년까지 대부분 17세기 전반기에 분포하며 모두 영남 출신 모임이었다. 과거 시험 등을 통하여 서울에 진출한 관원에게 고향은 학연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였고, 현재의 관직 생활을 언제나 지원하는 곳이었다. 1598년의 모임은 임진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남 출신 관원들이 전쟁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개최된 친목 모임이었다. 나머지 6건도 동향 출신의 임무 수행 후 무사 귀환 등 축하하거나 친목 도모를 통한 동향 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며, 모두 낙동강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 출신의 모임이었다.¹³⁾ 동향계획이 개최되고 계획첩이 제작

12) 작성된 목록은 원본이나 모사본, 문헌 조사를 통하여 문집 등 문헌에 좌목(제명록)이 수록된 경우로 한정하여 작성되었다. 이외에 더 많은 동향계획이 열리고 계획첩도 제작되었을 것이며, 앞으로 자료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목록에 한하여 검토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다.

13) 임진전쟁 당시 영남 지역은 격전지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고, 전쟁 이후 영남 출신들이 전쟁 공로나 과거 시험 등을 통해 다수가 관직에 진출하였다.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으로 한양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 지역 독립성이

된 것은 정치·사회적 배경도 있었으나 17세기 들어 다양한 계회가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계회도 제작 방식이 軸에서 帖으로 간소화되어 비용이 감소했던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¹⁴⁾

2.2 계회도 수록 同鄉契會帖

계회 장면 그림이 들어간 동향계회첩은 『七松亭同道會圖(1598)』, 『三清洞道會圖帖(1654)』,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그리고 동향계회로 추정되는 『契會圖(1637)』 등 4종이 있다. 『삼청동도회도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나머지 3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1 『七松亭同會圖(1598)』

『七松亭同會圖』는 1598년 10월 19일에 김대현 등 경상도 출신 관원들이 경성 명례방 칠송정 옛터에서 가진 모임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며, 풍산김씨 오미동 참봉택(안동)에 전하는 『世傳書畫帖』에 수록되어 있는 모사본과 개인 소장자의 모사본이 전한다.

『世傳書畫帖』은 풍산김씨 23세손 김중휴(1797-1863)가 10세손 김휘손으로부터 10대에 걸쳐 청백·충효·절의·문장 등으로 이름을 남긴 19인의 행적을 32점의 그림을 통해 조상의 행적을 드러내고자 제작한 절첩본이다.¹⁵⁾ 『七松亭同會圖』는 김대현(1553-1602)의 행적 가운데 하나로 계회도 장면을 그린 ‘七松亭同會圖’, 김우옹 등 참석자 15인이 수록된 ‘七松亭同道會題名錄’, 참석자 김대현의 ‘書題名錄後’, 김우옹의 從玄孫인 金聲久의 ‘追序(1706)’, 權斗經의 ‘追序(1711)’ 등 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계회가 있었던 明禮坊은 한성부의 남부 11坊 가운데 하나로 숭례문 안쪽으로 남산(목멱산) 아래 현재의 명동 지역에 해당된다. 계회도는 좌측의 계회 장면, 우측의 도성문(숭례문)과 민가 등을 배경으로 구분하여 도성의 중심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려졌다. 계회 장면은 뒤쪽의 남산을 배경으로 일곱 그루의 소나무 아래에 정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14인의 참석자

있었고, 모임에 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경북 지역이며, 퇴계를 중심으로 한 문인 학맥,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모임이 다수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17세기 후반기에 쇠퇴하는 것은 당쟁으로 인한 환국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직 진출자가 줄어들게 되는 등 영남 출신 관원이 감소한 점과 18세기 이후 계회첩 제작이 퇴조하는 흐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14) 계회도의 제작은 16세기 초반까지는 軸의 형식에 상단에 篆書로 계회도 명칭을 쓰고, 그 아래에 그림, 좌목, 시문, 서·발문을 적절히 배치하여 한 면에 그려 벽면에 걸어 두고 감상하며 모임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서면서는 軸으로 제작되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책자와 같이 몇 장에 걸쳐 작성하는 帖의 형식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수록 내용은 軸과 동일하지만, 그림이 이전의 축보다는 작아지고 첩을 열어야 계회도를 볼 수 있도록 변화하였으며, 더 간소하게 그림을 생략하고 첩을 만들기도 하였다.

15) 박정혜,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 조선시대 《풍산김씨세전시화첩》 연구,” 『한국학』 29권 2호(2006), 239.

16) 3편의 글 모두 찬자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權斗經의 追序는 權斗經의 『蒼雪齋集』에는 없고, 6촌 아우인 權斗寅의 『荷塘集』 권5에 『題先輩七松亭同會錄後』라는 작품명으로 수록되어 있어 저자에 차이가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한 黃彥柱의 문집인 『農臯公逸稿(9장)』에도 동일하게 權斗經으로 되어 있다.

가 원형으로 남아 있고, 그 앞에는 지필묵이 놓여 있으며, 김대현이 발문에서 ‘술병을 들고 와서 … 술잔을 들고’라고 표현한 것에서 보듯 큰 술병이 올려진 탁자가 가운데 있다. 우측은 ‘七松亭同會圖’라는 제목과 함께 멀리 남산과 이어진 2층 누각의 승례문을 배경으로 도성 안쪽의 민가와 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술병이 올려진 탁자와 불을 지피며 음식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다. 좌목은 신분, 성명, 자, 호, 출신지(고향)의 다섯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대현의 발문에 ‘김대현이 김자, 김석광, 정장과 함께 군문의 관아에 종사하면서 전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서울에 있는 영남 출신 관원과 약속하여 만나서 전란으로 인한 회포와 마음의 정을 풀고자 뜻을 모아 날짜를 정해 알리고 칠송정 옛터에서 동도회를 열었다.’는 모임의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김성구와 권두경의 追序는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黃彦柱의 외손자 權胤錫이 김대현의 후손가에 전하던 것을 구하여 새로 軸을 만들면서 작성된 것이며, 이 追序를 통하여 1706년 무렵 권윤석이 軸을 새롭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대현 후손가의 원본이 아닌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권윤석의 모사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모사본 제작 당시 작성되었던 追序까지 함께 『世傳書畫帖』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契會圖는 원본에는 없던 것을 권윤석이 축을 만들면서 추가하였고, 그것이 『世傳書畫帖』에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¹⁷⁾

개인 소장본은 세로 76cm, 가로 68.8cm 크기이며, 상단에는 계획도, 중단에는 ‘七松亭同會錄’ 제하에 좌목과 김대현의 ‘書七松亭同道會題名錄後(1598)’, 하단에는 김성구의 발문(1706)과 권두인의 ‘題先輩七松亭同會錄後’ 등 『世傳書畫帖』과 같으나 첩 형식이 아닌 1장에 그려진 축 형식을 갖추고 있다.¹⁸⁾ 계획도는 가운데 탁자 위에 큰 술병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일곱 그루의 나무 가운데 15인이 원형으로 앉아 있으며, 좌우 배경에는 지붕만이 그려진 민가가 여러 곳에 모여 있는 정교하지 못한 수묵화이다. 이 자료는 1706년에 권윤석이 새롭게 계획도를 추가한 축 형식의 계획첩을 보고 후대에 그린 모사본으로 그 저본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七松亭同會圖』는 모임을 주관했던 김대현의 집안에 전하던 것이 있었고,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참석자의 외손 권윤석이 김대현의 집안에 있던 제명록을 얻어서 계획 장면을 담은 그림을 추가하여 軸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이 권윤석 모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19세기에 모사되었고, 1860년대에 풍산김씨의 『世傳書畫帖』에도 수록되었던 것이다.¹⁹⁾

17) 원본 발문에 계획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명록’만 언급되고 있어 계획도는 『世傳書畫帖』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성구의 추서(1706)에 ‘權君賁爾甫 懼夫舊跡之湮沒而無傳 將作軸而垂後’라 하여 권윤석이 칠송정의 옛 자취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軸을 만들어 후세에 전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옛 자취를 그림에 담아 축을 만들면서 두 사람의 追序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혜(2006, 249)는 “『七松亭同道會題名錄』은 원래 座目과 김대현의 『書題名錄後』만으로 꾸며졌던 것인데 100여 년이 지난 후 동도회 회원이었던 黃彦柱의 외손(權賁爾)이 김대현의 집에 전하던 제명록을 보고 한 첩을 만들어 자신의 집안에 보관하였다.”고 하였고, 윤진영(2013, 141) 또한 “상상적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계획 장소 주변 실경의 표현을 고려한다면, 전하던 원본을 토대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19세기 후반 『世傳書畫帖』 제작 당시에 새롭게 그린 것으로 보지 않았다.

18) 이 계획첩은 2017년 서울의 경매에 출품되었던 것으로, 경매 출품 사진을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였다.

19) 문집에 편입된 것도 2종 있다. 황효공(1496-1553)의 『龜巖先生易範圖(1836)』 부록에 수록된 손자 黃彦柱의

<표 2> 『七松亭同會圖』 수록 명단

	제명록 수록 정보					추가 정보					비고
	신분	성명(생졸년)	자	호	거주	나이	품계	본관	과거	문집	
1	同知	金宇顥(1540-1603)	肅夫	東岡	성주	59	중2	義城	1558進 · 1567文	○	
2	司評	尹涉(?)	景楫	竹湖	용궁		정6		-		
3	主簿	黃彥柱(1553-1632)	子建	農阜	풍기	46	중6	昌原	-	○	
4	主簿	金行可(?)	時晦	沙村	성주		중6		-		
5	引儀	黃忱(?)	汝誠	錦軒	풍기		정6		-		
6	縣監	都慶宗(?)	丕承	松溪	고령		중6		-		
7	副率	金允明(1545-?)	守愚	二松	안동	54	정7	順天	1568生	-	
8	參奉	金滋(?)	志和	龜巖	고령		중9		-		
9	直長	金大賢(1553-1602)	希之	竹巖	안동	46	중7	豐山	1582生	○	
10	直長	郭守仁(1537-?)	景宅	瀟潭	함창	62	중7	淸州	1585生	실기	
11	禁都	權淳(1564-?)	和甫	南谷	함창	35	중5	安東	1589生	-	
12	別檢	鄭樟(1569-1614)	直甫	晚悟	성주	30	중8	淸州	1612文	○	鄭述의 子
13	奉事	金錫光(?)	慶遠	石潭	선산		중8		-		
14	洗馬	金瓚(?)	仲溫	松軒	상주		정9				
15	參奉	權裕男(?)	順承	雙栢	성주		중9				

이 모임 참석자는 김대현을 중심으로 임진전쟁을 함께 겪으며 동고동락하였던 영남 출신 관료들이며, 정유재란이 끝날 무렵 동향이 함께 모여 전쟁의 고통과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자리였다.²⁰⁾ 참석자들은 김우옹을 제외하면 모두 6품에서 9품으로 하급 실무관리들이고, 출신 지역을 보면 남으로는 고령에서 북으로는 풍기까지 8개 고을이다. 성주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 함창 · 풍기 · 고령 각 2명, 선산 · 용궁 · 상주 각 1명으로 모두 낙동강 인근의 현재의 경북 지역 출신들이었다.

2.2.2 『契會圖(1637)』

『契會圖』는 1637년 7월에 김영조(金大賢의 子) 등 15인이 모임을 가진 후에 제작한 계회첩으로 영주의 반남박씨 관공공과 청하재본이다.²¹⁾ 聽荷齋는 朴勝振(1853-1930)의 호이며, 박회무(박승임의 손자)의 11세손으로 박회무가 이 모임에 참석하여 받았던 것이 후대 모사되어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은 선조의 문헌을 정리하여 박회무 · 박종무의 문집 합본인 『六三聯稿(1906)』에 이어 박상충 · 박언 · 박규의 문집 합본인 『潘陽世稿(1907)』를 편성 ·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契會圖』를 포함한

『農阜公逸稿(9張)』 잡록에는 계회도 없이 제명록, 발문(찬자 표기 없음), 追序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윤석의 모사본을 저본으로 하였던 것이다. 한편, 『西原世稿(1872목활자본)』 권6에 수록된 관수인의 『瀟潭實記』에는 원본인 제명록과 김대현 발문만 있으며, 여기에는 발문에 이어 찬자를 ‘竹巖金希之書’로 표기하여 개인 소장본의 표기와 같다.
20) 박정혜(2006), 249.

21) 한국국학진흥원, 『만남수록 정은 깊어지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 86-87.

청하재의 고문헌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관리되고 있다.

『契會圖』는 별도 제목은 없이 계획도와 좌목 각 1면의 낱장 2면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의 이면에는 『潘陽世稿』²²⁾ 권3의 제7장과 제9장이 각각 배접되어 있다.

좌목은 대사헌 김영조 이하 15인에 대하여 신분,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등 6개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그림은 가운데에 丁자 모양의 누각을 부각시키고, 그 안에 실제로 적은 9인의 참석자를 배치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앞에는 계곡과 사각의 연못을 그렸다. 누각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등을 다채롭게 그렸으며, 그 외형은 바위산을 그림으로써 산 아래의 누각에서 모임을 가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좌목은 형태적인 면이나 號가 대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후대에 작성된 것이며, 이 『契會圖』 또한 후대에 다시 그린 모사본으로 보인다.

이 계획도에는 서·발문이나 제목이 없어 어떤 모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좌목 끝에 ‘崇禎丁丑孟秋上浣’이란 기록을 통하여 1637년 7월에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좌목 기재 인물 정보를 방목에서 살펴보면 출신지가 榮川인 사람이 12인으로 榮川을 중심으로 한 영남 출신 관료의 모임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참석자의 근황을 年譜나 承政院日記 등 기록을 통해 보아도 김영조는 1637년 3월 대사헌, 4월에 형조 참판이 되었으며, 秦尙弘은 1635년 4월에 內贍正, 1637년 11월에 통례원 奉禮가 되었고, 金應祖는 1635년 12월에 장령, 1636년 12월에 남한산성으로 扈駕, 1637년 9월에 서울에 있으면서 장현광의 부음을 듣는 등 1637년 1월의 국왕 환궁 이후에 서울에 있으면서 가진 모임으로 추정된다.

<표 3> 『契會圖』 수록 명단²³⁾

	좌목 수록 정보						추가 정보				
	신분	성명	자	호	생년	본관	나이	품계	출신	과거	저술
1	大司憲	金榮祖(1577-1648)	孝仲	忘窩	丁丑	豐山	61	종2	榮川	1601生·1612文	忘窩集
2	別提	李丕承[1618-?]	繼述	追遠	戊午	永川		6			-
3	郡守	秦尙弘(1569-?)	毅伯	盤桓	己巳	基川	69	종6	榮川	1606生·1612文	-
4	庶尹	金友益(1571-?)	擇之	斗巖	辛未	禮安	67	종4	榮川	1612文	-
5	進士	權點(1568-?)	子興	休溪	戊辰	安東	70		榮川	1609進	-
6	生員	朴成范(1568-?)	子常	孤松	戊辰	高靈	70		榮川	1616生	-
7	參奉	金孝先(1568-?)	善源	咏嘯	戊辰	淸道	70	종9			-
8	都事	朴檜茂(1575-?)	仲植	六友	乙亥	羅州	63	종5	榮川	1606進	六三聯稿
9	宣傳	金起先(1572-?)	善發		壬申	淸道	66		[榮川]		-
10	進士	權駐(1576-1651)	子止	春睡	丙子	安東	64		榮川	1605進	-
11	直講	閔希顔(1578-1646)	景愚	砥川	戊寅	榮川	60	종5	榮川	1609生·1629文	-
12	進士	朴縱茂(1582-?)	季直	三樂	壬午	羅州	56		榮川	1609進	六三聯稿
13	掌令	金應祖(1587-1667)	孝徵	鶴沙	丁亥	豐山	51	정4	榮川	1613生·1623文	鶴沙集
14	校理	成以性(1595-1664)	汝習	溪西	乙未	昌寧	43	5	榮川	1616生·1627文	溪西遺稿
15	縣監	丁彥璫(1600-?)	君瑞	檢巖	庚子	羅州	38	종6	京	1624進	

22) 1907년에 영주 夏寒亭 간행 목판본. 반남 박씨 상계인 박상충(권1-3), 박언(권4-5), 박규(권6)의 문집 합본.

23) 李丕承의 생년은 ‘무오’로 되어 있으나 20세 또는 80세가 되어 오기로 보이며, 출신지는 참석자 사마방목 정보에 의하여 추입하였는데, 합격 정보가 없는 김기선의 경우 『신묘식년사마방목(1591)』을 보면 출제한 아들 金潛(1599-1684)이 榮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榮川으로 추정하였음.

2.2.3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終南同道會題名錄』은 1656년 1월에 김응조 등 영남 출신 관료 12인이 남산 아래에서 동도회를 가진 후에 제작한 원본 계획첩이다. 모임에 참석하였던 김응조와 권박의 후손가인 학사 종택과 병국 종택에 전하고 있다. 두 점 모두 계획도 1면, 좌목 2면, 김응조의 발문 1면 등 4면으로 구성된 절첩본이다.²⁴⁾ 김응조는 발문에서 ‘영남은 인재가 많아 왕조에 출사한 사람이 많은데, 공무의 여가에 모임을 열어同道會라 하였다. 작년 가을에 서울에 왔으나 李元圭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홀로 외롭게 지낸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여러 벗들이 관직에 복귀하여 종남산 아래에서 모임을 갖고 그림과 함께 그 아래에 제명록을 붙였다.’고 하여 영남 출신의 관직 복귀 기념이라는 계획의 취지와 계획첩의 제작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同道會가 열린 장소는 舍人 李軫(1600-?)의 집이었다.²⁵⁾

<표 4>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수록 명단

순서	제명록 수록 정보						추가 정보				
	신분	품계	성명	자	생년	본관	나이	품계	출신	과거	저술
1	禮曹參議	通政大夫	金應祖	孝徵	丁亥1587	豐山	70	정3	榮川	1613生・1623文	鶴沙集
2	行成均館典籍	通訓大夫	金鑾	汝精	丙申1596	禮安	61	정6	榮川	1625文	-
3	行繕工監劄正	通訓大夫	朴廷著	吉孚	辛丑1601	咸陽	56	중4	醴泉	1633生・1639文	-
4	行禮曹正郎	通訓大夫	徐忭	子慶	乙巳1605	達城	52	정5	大丘	1630生・1633文	龍溪集
5	行禮曹佐郎	通訓大夫	都愼與	明叔	乙巳1605	八莒	52	정6	大丘	1633生・1651文	搗軒集
6	行禮曹正郎	通訓大夫	權搏	天遊	丁未1607	花山	50	정5	龍宮	1630進・1633文	枝止世稿
7	行內瞻寺直長	通訓大夫	朴愜	通彦	戊申1608	凝川	49	중7	善山	음직	
8	行成均館學諭	通仕郎	宋挺濂	繼孟	壬子1612	德恩	45	중9	三嘉	1635生・1654文	存養齋集
9	行成均館學諭	宣敎郎	姜象先	孝章	癸丑1613	晉山	44	중9	龍宮	1648生・1654文	-
10	行康陵參奉	朝散大夫	李達意	以正	丙辰1616	月城	41	중9	榮川	1654生・1657文	石村集
11	行成均館學諭	通仕郎	郭世翼	九萬	庚申1620	筍山	37	중9	玄風	1651生・1654文	
12	行成均館博士	奉直郎	柳挺輝	仲謙	乙丑1625	完山	32	정7	安東	1651文	

24) 두 점 모두 네 번째 행에 기재된 참석자의 인적 사항을 지운 흔적이 있다. 병국 종택본은 인적 사항 전체를 먹으로 도말 처리하였고, 학사 종택본은 이름과 字 부분만 표면을 도려내어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워진 사람은 徐忭이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1655년 11월에 예조정랑이 되어 1656년 1월에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후 1656년 5월 천안군수가 되었을 때 인평대군(효종의 아우)의 처남인 오정일 등이 역모를 도모한다고 고변하였다가 무고로 밝혀져 심문을 받던 중 杖殺되었다. 계획도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은 逆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고서에 이름이 지워지거나 사각 표시가 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대부분 역안에 이름이 오른 경우들이다. 徐忭은 고종이 즉위한 후인 1864년 7월에 와서 대왕대비(조대비)의 전교에 따라 신원되었다. 이 『終南同道會題名錄』은 徐忭의 문집인 『龍溪集』에 『同道會帖』이란 題下에 그림은 없고 좌목과 김응조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동향 출신의 모임에 함께 하며 도의를 다졌으나 역안에 이름이 올라 이름이 지워지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25) 宋挺濂(1612-1684), 『存養齋集』 「年譜」.

“丙申 先生四十五歲 春除成均館學諭 作同道會 與同道十一人 會于終南山下舍人李軫家 圖形于帖 題名其下 金鶴沙應祖序之.”

제명록에는 예조참의 김응조 이하 12인의 명단을 신분, 품계, 성명, 자, 생년, 본관 등 6개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기재 순서는 관직이나 품계의 高下가 아니라 70세의 예조참의 金應祖부터 1651년에 문과에 급제한 32세의 성균관박사 柳挺輝까지 나이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다. 행사와 계획도 제작의 주관자는 발문 작성자인 김응조이며, 출신 지역은 榮川 3인, 龍宮·大丘 각 2인, 예천·안동·선산·삼가·현풍 각 1인 등 榮川과 대구 인근이다. 과거 급제 이력을 보면, 朴愷 이외의 11인은 모두 문과 급제자이고, 그 가운데 9인은 사마시 합격자로 대부분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다.

2.3 계획도 미수록 同鄉契會帖

2.3.1 『嶺南同道會帖(1601)』

『嶺南同道會帖』은 1601년 7월에 이호민 등 26인이 장악원의 새 건물에서 모임을 가진 후에 제작된 것이다. 원본은 이 모임에 예조정랑으로 참석하였던 申之悌의 후손가(경북 의성 오봉 종택)에 전하며, 경북 유형문화재 제345호의 일부이다. ‘題嶺南同道會帖題名卷’이란 題下에 1602년 7월에 이호민이 지은 서문 2면에 이어 제목 없이 다음 장부터 西川君 鄭崑壽 이하 27인의 좌목이 4면에 걸쳐 품계, 관직, 성명, 자, 출신지 등 5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곤수는 당시 64세로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참석자들이 동도회를 마치고 각각 봉급을 내어 제명록을 만들면서 의견을 모아 맨 앞에 수록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종1품(충록대부)부터 종9품(종사랑)까지 범위가 넓고, 문·무관이 함께하였으며, 멀리 장기현감 등 외직에 있던 사람까지 다수 참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嶺南同道會帖』은 참석자의 문집에 수록된 것도 3종 확인된다. 초계 출신으로 重林道 찰방으로 참여하였던 全雨(1548-1616)의 『睡足堂實記』 附錄에 ‘嶺南同道會帖’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전우의 후손 全宅溟이 이호민의 후손 李益運(대사헌, 1748-1817)에게 첩을 보여주고 받은 ‘嶺南同道會帖跋’이 수록되어 있다.²⁶⁾ 영해 출신 오극성의 『問月堂集』 부록에는 ‘掌樂院契帖’으로, 거창 출신 柳仲龍의 『漁適集』에는 ‘掌樂院同道會錄’이란 題下에 수록되어 있는데, 『漁適集』에는 성명과 출신지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 이호민의 『五峯集』에도 서문이 있으며, 李民寔(1573-1619)의 『敬亭集』 연보에도 ‘장악원의 동도회에 참석하였고, 계첩이 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²⁷⁾

26) 18세기 초반까지 남에게 보일 정도로 완전한 책이 후손가에 전해지고 있었으나 1858년 무렵 간행된 실기에는 이호민의 서문 일부와 좌목 일부에 ‘缺’자로 표기되어 있어 훼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7) 李民寔, 『敬亭集』 「年譜」.

“二十九年辛丑 先生三十二歲...七月 參同道會于掌樂院 與鄭柏谷崑壽 李五峯 姜東臯紳諸賢會燕 有契帖.”

<표 5> 『嶺南同道會帖』 수록 명단

	제명첩 기재 항목					추가 정보				
	품계	관직	성명	자	출신	號	본관	나이	과거	저술
1	崇祿大夫	西川君	鄭崑壽(1538-1602)	汝仁	星州	栢谷	淸州	64	1567진 · 1576문	문집
2	正憲大夫	行弘文館提學	李好閔(1553-1634)	孝彦	軍威	五峰	延安	49	1579양시 · 1584문	문집
3	嘉義大夫	戶曹參判	姜紳(1543-1615)	勉卿	尙州	東皐	晉州	59	1567진 · 1577문	-
4	折衝將軍	行忠佐衛副護軍	姜縊(1552-1614)	正卿	尙州	菁川	晉州	50	1590문	-
5	通訓大夫	軍資監正	尹曄(1546-?)	汝晦	尙州	-	南原	56	1580문	-
6	顯信校尉	守訓鍊院僉正	朴應立(?)	信甫	寧海	-	-		-	-
7	中直大夫	行禮曹正郎	申之悌(1562-1642)	順夫	義城	梧峰	鵝洲	40	1589문	문집
8	保功將軍	行翊衛司翊衛	姜統(?)	文卿	尙州	-	-		-	-
9	奉列大夫	行蔚山判官	金澤龍(1547-1627)	施普	禮安	臥雲子	義城	55	1576생 · 1588문	-
10	中直大夫	行司憲府監察	權景虎(?)	從卿	咸昌	-	-		-	-
11	宣敎郎	省峴道察訪	柳仲龍(1558-1635)	汝見	居昌	漁適	文化	44	1582진 · 1600문	문집
12	承議郎	重林道察訪	全雨(1548-1616)	時化	草溪	睡足堂	全州	54	-	실기
13	奉正大夫	前行黃澗縣監	吳克成(1559-1616)	誠甫	寧海	問月堂	咸陽	43	1594무	문집
14	奉直郎	前行靑山縣監	李弘發(?)	景晦	金山	-	-		-	-
15	奉直郎	行昌寧縣監	朴光先(1562-1631)	克懋	高靈	-	高靈	40	1591생 · 1618문	-
16	宣敎郎	前長鬐縣監	權世仁(?)	景初	丹城	-	-		-	-
17	承議郎	全行司宰監注簿	權淳(1564-?)	和甫	咸昌	-	安東	38	1589생	-
18	進勇校尉	龍驤衛副司果	權澍(?)	汝霖	咸昌	-	-		-	-
19	秉節校尉	忠武衛副司果	金惠(1566-?)	晦仲	尙州	松灣	商山	36	1590진 · 1605문	-
20	承訓郎	前行繕工監直長	盧道亨(1571-1615)	伯嘉	尙州	-	光山	31	-	-
21	通仕郎	承文院著作	李民庠(1570-1629)	寬甫	軍威	敬亭	永川	32	1597문	문집
22	啓功郎	行校書館著作	權濟(?)	致遠	丹城	-	-		-	-
23	宣敎郎	行繕工監奉事	申景翼(?)	文叔	尙州	-	-		-	-
24	從事郎	前藝文館檢閱	李民奭(1573-1619)	而壯	軍威	紫巖	永川	29	1600문	문집
25	宣敎郎	行廣興倉副奉事	趙靖(1555-1636)	安仲	尙州	黔澗	豐壤	47	1603진 · 1605문	문집
26	宣敎郎	前行濟用監參奉	曹友仁(1561-1625)	汝益	咸昌	頤齋	昌寧	41	1588진 · 1605문	문집
27	通仕郎	權知承文院副正字	南復圭(1559-?)	汝容	安東	-	英陽	43	1588생 · 1600문	

2.3.2 「同道會話錄(1612)」

「同道會話錄」은 1612년에 朴而章 등 10인이 모임을 가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참석자의 문집 3종에서 확인된다.

우선 시강원설서로 참석하였던 합천 출신 姜翼文의 『鰲庵集』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同道會話圖」는 제목만 있고 그림은 없으며, 「同道會話錄」에는 모임에 참석했던 11인의 좌목이 품계, 관직, 성명, 자, 호, 본관, 출신지 등 7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좌목에 이어 현손 姜趾殷의 발문이 있는데, 원본을 보고 계획첩을 새로 작성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는 1737년 경상감사 민응수가 인재를

천거하여 올린 상소문에 등장한다.²⁸⁾ 계획도가 문집에 전하게 된 것은 강지은이 이때 집안에 전하던 계획도를 새로 갈무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同道會話圖’의 細註에는 ‘만력 임자년(1612)에 선생(강익문)이 시강원설서로 同道會를 열고 인하여 屏障을 만들고 11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유목을 모사할 수도 없고 일실되게 둘 수도 없어 圖名과 會錄만 남긴다.’고 하여 당시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새로 그 내용만 기록해 두었으며, 1908년에 목활자로 문집이 간행될 때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尹銑의 『秋潭集』 연보에도 1612년 해당 연도 아래에 좌목을 연서하였으며, 성명, 자, 호, 본관 등 4개 항목으로 간략히 기재하였는데, 『懋庵集』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편, 柳仲龍의 『漁適集』 부록에도 ‘同道契會錄’이란 이름으로 『懋庵集』보다 1인이 적은 10인의 좌목이 기재되어 있다.²⁹⁾ 題目註에 ‘畫像이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좌목에 이어 후인들이 적은 ‘同道契會錄畫像韻’ 3편도 있어 원본에는 계획도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참석자는 종2품부터 종7품까지 문·무관이 함께하였으며, 출신지는 초계, 삼가, 합천, 고령, 함양, 거창, 대구 등 주로 서부 경남 지역 중심이다. 이 계획은 다른 영남 동도회가 경북 지역 출신들의 모임인 것과 달리 합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지역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동도회라는 점이 특징이다.

<표 6> 「同道會話錄」 수록 명단

	계획록 기재 항목							추가 정보		
	품계	관직	성명	자	號	본관	출신	나이	과거	저술
1	嘉善大夫	工曹參判 ³⁰⁾	朴而章(1547-1622)	叔彬	龍潭	昇平	高靈	66	1573양시·1586문	문집
2	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	尹銑(1559-1639)	澤遠	秋潭	坡平	三嘉	54	1582진·1588문	문집
3	通訓大夫	行司憲府持平	朴汝樑(1554-1611)	公幹	感樹	陟山	咸陽	-	1588진·1600문	문집
4	禦侮將軍	行龍驤衛司果	朴思齊(1555-?)	景賢	梅澗	竹州	三嘉	58	1589진·문	-
5	通訓大夫	行淸風郡守	李大期(1551-1628)	任重	雪壑	全城	草溪	62	-	문집
6	通德郎	守司僕寺僉正	金應成(?)	仲時	癡軒	玉谷	高靈		-	-
7	朝散大夫	行禮曹正郎	柳仲龍(1558-1635)	汝見	漁適	文化	居昌	55	1582진·1600문	문집
8	秉節校尉	行忠武衛副司正	姜翼文(1568-1647)	君遇	懋菴	晉州	陝川	45	1589진·1606문	문집
9	啓功郎	校書館副正字	孫遜(1566-1628)	季進	聞灘	一直	大邱	47	1606문	문집
10	朝奉大夫	行濟用監直長	李宗文(1567-1638)	學可	洛浦	全城	-	46	1588생	-
11	朝散大夫	前行迎日縣監	柳世溫(?)	士順	臨湖	文化	草溪		-	-

28) 『英祖實錄』 英祖 13年(1737) 3月 3日.

29) 『懋庵集』에서 세 번째 기재되었던 朴汝樑이 빠져 있다. 박여량은 1611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尹銑의 『秋潭集』 연보에 수록된 명단은 『懋庵集』을 보고서 기재한 것으로 연보 해당 기사의 말미에 朴而章이 1612년 이미 자헌대부가 되었는데 좌목에 통훈대부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개최 연도를 임인년(1602)으로 추정하였다.

30) 유중용의 『어적집』에는 병조참판으로 되어 있음.

2.3.3 『同道會帖(1634)』

『同道會帖』은 1634년 5월 12일에 金孝先 등 35인이 掌苑署에서 모임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며, 절첩본이 전한다.³¹⁾ 이 절첩본을 보면, 呂孝曾이 지은 後序(1636) 2면에 이어 ‘同道會帖’이란 題下에 前參奉 金孝先 이하 35인의 좌목이 6면에 걸쳐 신분(관직), 성명, 자, 생년, 출신지 등 5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姜大遂의 서문(1634)이 2면에 수록되어 있으나 계획도는 없다. 이 모임은 다른 모임의 일반적인 친목 도모와는 달리 金榮祖가 奏請副使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었다. 김영조는 1633년 1월 세자 책봉을 위한 奏請副使가 되어 북경을 다녀왔는데, 이때 追封謝恩使, 冬至使, 聖節千秋進賀使를 겸하여 1634년에 귀국하였고, 1634년 5월 14일에 한 자급 加資와 함께 노비 3口와 田 10結이 상급으로 내려졌다. 명과 청이 요동에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바닷길로 명나라에 주청을 위한 사행을 무사히 다녀온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이었다.³²⁾ 그런 때문인지 가장 많은 진·현직 내외 관원과 생원·진사 등 모두 35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계획을 마치면서 기념첩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일을 姜大遂가 맡도록 하였으며, 강대수는 두 달 뒤인 1634년 7월에 첩을 만들고 그 전말을 서문으로 적었다. 여효증의 後序는 1636년 6월에 지은 것인데, 강대수가 첩을 만들고 한참이 지난 1636년 봄에 서울에서 계획첩을 얻어 보고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것이다.

이 첩은 徐忞의 문집인 『龍溪集[1849]』과 청송심씨 문집 합본인 『靑己世稿(1908)』의 『松湖公實紀(沈自光)』 부록에 각각 좌목과 강대수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심자광의 후손 심학환 등은 『同道會帖諸賢實錄(1926)』을 별도로 제작하였는데, 목활자본임에도 강대수의 서문과 좌목은 강대수의 글씨를 모사하여 목판에 새기고, 여효증의 후서는 목활자로 찍는 한편, 좌목과 별도로 참석자인명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외에 河潛의 『台溪集』 연보에도 관련 기록이 있으며,³³⁾ 이지화의 문집이 수록된 『全城世稿』에는 강대수의 서문이 ‘同道會帖識’라는 題下에 수록되어 있는데 찬자 표기는 없다.

31)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28-21). 5절 10면의 절첩본(크기: 35.3×21.6 cm)으로 정서되어 있어 원본으로 보이지만, 한성참군으로 참석하였던 徐忞의 경우 이름인 忞자를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대 제작본으로 추정된다. 원본이라면 『終南同道會題名錄(1656)』의 두 사례처럼 먹으로 지우거나 인적사항을 긁어서 지우는 방식으로 삭제 흔적을 남겼을 것인데, 이름만 적지 않은 것은 서변이 1656년 5월에 역안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첩이 제작되었음을 말해 준다.

32) 고려 사람인 홍관(?-1126)의 사적을 모은 『洪忠平公事蹟考(1847)』의 권5에 그의 대표 행적을 8개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航海朝天圖’이다. 송과 거란이 싸우고 있어 육로가 아닌 뱃길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김영조 일행의 귀환 또한 그것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33) 『台溪集』 年譜.

“甲戌 五月 … 赴同道會于掌苑署 時金參判榮祖使中朝還 同道儒紳之在洛者 共會於苑署 作同道會帖 總三十五人 修撰姜公大遂序之.”

<표 7> 「同道會帖」 수록 명단

	계회록 기재 항목					추가 정보					
	신분	성명	자	생년	출신	본관	품계	나이	號	과거	저술
1	前參奉	金孝先(1568-?)	善源	戊辰	榮川	-	종9	67	伴鶴軒		
2	軍資正	鄭彥宏(1569-1640)	汝廓	己巳	咸昌	東萊	정3	66	西溪	1603생 · 1606문	西溪集
3	司槩正	黃尙謙(1573-?)	子益	癸酉	豐基	平海	정3	62	梅窓	1610생 · 1612문	
4	長興奉事	李義遼(1574-1653)	宜仲	甲戌	安東	眞城	종8	61	寒厓	1612생	
5	副護軍	金榮祖(1577-1648)	孝仲	丁丑	榮川	豐山	종4	58	忘窩	1601생 · 1612문	忘窩集
6	前郡守	朴景范(1577-?)	子仰	丁丑	榮川	高靈	종4	58	東皐	1605진	
7	前佐郎	曹希仁(1578-1660)	汝善	戊寅	尙州	昌寧	정6	57	默溪	1616생 · 1627문	
8	三陟府使	權濬(1578-1642)	道甫	戊寅	丹城	安東	종3	57	霜崑	1613생 · 1613문	
9	參禮察訪	閔希顔(1578-1646)	景愚	戊寅	榮川	驪興	종6	57	砥川	1609생 · 1629문	
10	宜寧縣監	金慶祖(1583-1645)	孝吉	癸未	榮川	豐山	종6	52	深谷	1609생	
11	軍器僉正	呂焯(1586-1652)	晦仲	丙戌	星山	星山	정3	49	虎溪	1624문	
12	前正郎	洪翼漢(1586-1637)	伯昇	丙戌	榮川	南陽	정5	49	花浦	1615생 · 1624문	花浦集
13	前參奉	成汝樞(1583-?)	馨叔	癸未	尙州	-	종9	52	西崗	-	-
14	生員	崔東巢(1586-1661)	鎮仲	丙戌	大丘	慶州	-	49	臺巖	1616진	臺巖集
15	工曹正郎	李之華(1588-1666)	而實	戊子	大丘	全義	정5	47	茶圃	1610진 · 1613문	-
16	四山監役	金念祖(1589-1652)	孝修	己丑	安東	豐山	종9	46	鶴陰	1635생	-
17	前佐郎	金諫(1590-?)	用和	庚寅	醴泉	順天	정6	45	晚翠軒	1617생 · 1627문	
18	修撰	姜大逵(1591-1658)	學顔	辛卯	陝川	晉州	정6	44	寒沙	1610생진 · 1612문	寒沙集
19	進士	金遼(1592-?)	載仲	壬辰	尙州	永同	-	43	洛皐	1630진	-
20	司宰直長	河潛(1597-1658)	晉伯	丁酉	晉州	晉陽	종7	38	台溪	1624진 · 1633문	台溪集
21	成均學諭	韓克述(1598-1653)	光甫	戊戌	尙州	清州	종9	37	蘇湖	1624생 · 1630문	-
22	公清都事	都愼修(1598-1651)	永叔	戊戌	大丘	星州	종5	37	止巖	1624진 · 1626/1627문	止巖集
23	童蒙教官	鄭思武(1599-?)	姬翼	己亥	醴泉	-	종9	36	-	-	-
24	注書	李尙逸(1600-1674)	汝休	庚子	善山	碧珍	정7	35	龍菴	1624생 · 1630문	-
25	生員	朴安復(1601-1652)	而得	辛丑	榮川	務安	-	34	草堂	1624생 · 1639문	-
26	生員	朴廷蕃(1601-1672)	吉孚	辛丑	醴泉	咸陽	-	34	-	1633생 · 1639문	-
27	進士	金頊(1602-?)	愼伯	壬寅	星山	義城	-	33	沙村	1624진 · 1639문	-
28	生員	呂孝曾(1604-1679)	魯而	甲辰	星山	星山	-	31	西巖	1633생 · 1635문	星山世稿
29	進士	李惟頤(1604-1657)	大而	甲辰	高靈	星州	-	31	梅軒	1630진 · 1639문	梅軒集
30	漢城參軍	徐忞(1605-1656)	子慶	乙巳	大丘	達城	정7	30	龍溪	1630생 · 1633문	龍溪集
31	進士	都愼興(1605-1675)	明叔	乙巳	大丘	星州	-	30	擣軒	1633진 · 1651문	擣軒集
32	生員	金迂(1606-1681)	汝定	丙午	醴泉		-	29	不求堂		不求堂集
33	全羅都事	曹時逸(1607-?)	日休	丁未	陝川	昌寧	종5	28	陽溪	1629문	-
34	掌苑別提	趙翺(1610-?)	成卿	庚戌	尙州		6	25	漣川	-	-
35	訓鍊奉事	沈自光(1592-1637)	仲玉	壬辰	陝川	青松	종8	43	松湖	-	-

이외에 계회첩 없이 계회 개최가 확인되는 것도 있다. 1604년 5월에 李好閔, 金玔, 李民歲, 李竣 등이 훈련원에서 가진 모임이다. 이 모임은 이이첨 등이 이언적의 문묘 종사와 관련하여 이언적을 비방하고 혈뜬자 영남 유생 金允安 등이 상소하여 무고함을 변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때 임금의 명으로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廷試를 실시하여 선발하였고, 이를 축하하고자 영남 출신 관원과 유생이 道會를 개최하고 첩을 작성하였다.³⁴⁾ 동도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영남인의

34) 金玔, 『栢巖集』 「年譜」, “『存養齋集』 「年譜」, “三十二年甲辰 先生六十五歲...五月 參同道會于訓鍊院 時李爾瞻

자존감과 관련된 사안은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여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³⁵⁾ 1612년 창덕궁 중건 후 移御와 세자의 가례를 축하하기 위한 증광별시에서 문과 33인 가운데 11인이 영남 출신이 되자 영남 출신 관료들이 ‘조정에서 인재를 얻었고, 영남의 경사’라고 하여 薰陶防 竹洞里 權淳(1564-?)의 집에서 합격 축하를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³⁶⁾ 1676년 8월에 송정림 등이 이담명의 京第에서 가진 모임이 있다.³⁷⁾

3. 『三清洞道會圖帖』의 제작과 내용

3.1 전존본 현황

3.1.1 『寶帖』

『寶帖』은 광산김씨 설월당 종택본으로 윤진영의 연구에서 소개되었다.³⁸⁾ 절첩 형식의 필사본으로 크기는 세로 35.7 cm, 가로 19.0 cm이며, 표지 좌측 상단면에 ‘寶帖寶帖’이란 제첩을 붙였는데, 원본과 다른 종이에 후대에 써서 붙인 것이다. 이어 본문에는 계획 장면을 그린 그림이 양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장소를 의미하는 ‘三清洞’이 적혀 있다. 다음 장 오른쪽 면은 비워 두고 왼쪽 면부터 별도의 제목 없이 참석자 명단이 한 면당 5인씩 6면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좌목에 이어 마지막 행에 ‘甲午九月初六日會于三清洞’이라는 목서가 있어 1654년 9월 6일에 三清洞에서 계획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붉은 색으로 변란을 그렸는데, 상하 변란은 굵고 세로의 계선은 가늘게 그렸으며, 자료의 상태는 좌목 제2장 후면 시작 1-2행의 일부가 습취로 인하여 글자가 훼손되어 補寫하였으나 그 이외에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설월당 종택에 이 첩이 전하는 것은 모임에 참석하였던 金攄(1633-1678)이 받은 것이 전해진 것이며,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되고 있다. 김충은 모임 2년 전인 1652년에 20세의 나이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모임 참석자 가운데 가장 어린 22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60세의 安弘靖과 38세의 나이 차이를 보인다.

輩詆毀晦齋先生 嶺儒上疏辨誣 聖批優答 仍命廷試疏儒 賜及第 先生與嶺中搢紳及儒生 設會以修 聖恩 李五峰送詩以賀 先生次其韻”；『敬亭集』『同道會 草次大學士五峯韻』“時嶺南儒生金允安等 赴闕拜疏 辨誣晦齋先生 批答甚優特命庭試入招者 各賜恩畫”；李民庇，『敬亭集』『年譜』“三十二年甲辰 先生三十五歲...三月 參同道會于訓練院 與李五峯 金柏巖功 李蒼石諸賢 設會 遂帖以傳”

35) 강정화(2009), 82.

36) 曹友仁(1561-1625), 『頤齋集』, 『竹洞會話錄序』

37) 宋挺謙, 『存養齋集』『年譜』.

“修同道會帖 與監司李溟翼 承旨李觀徵 提學李堂揆 典籍姜復先 掌令朴廷薛 佐郎金邦杰 獻納金海一 同會于李聯命京第.”

38) 윤진영(2013), 124-149.



<그림 1> 설월당본 『寶帖』의 계획도

3.1.2 『三清洞道會畫帖』

이 첩은 최근에 알려진 개인 소장본³⁹⁾으로 설월당본과 동일한 절첩 형식의 필사본이며, 크기는 세로 36.0 cm, 가로 19.2 cm(계획도 크기는 세로 33 cm, 가로 39 cm)로 설월당본과 동일하다. 표지도 동일한 위치에 ‘三清洞道會畫帖’이란 제첩을 붙였는데, 이 또한 후대에 붙인 것이다. 계획도가 2면에 걸쳐 그려져 있고, 다음 장 오른쪽 면을 비우고 왼쪽 면부터 별도의 제목 없이 한 면에 5인씩 6면에 걸쳐 참석자를 기재하고 있으며, 붉은색 변란이나 좌목의 글씨체 등 형식과 필체 등 여러 면에서 설월당 종택본과 동일하여 같은 시점에 제작된 원본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계획도에 모임 장소인 ‘三清洞’이란 표기가 없고, 그림 표현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개인본은 설월당본보다 여백이 없이 대상을 보다 크게 표현하여 꽉 찬 느낌을 주며, 소나무 등의 그림에 면보다는 선을 강조하여 그렸다. 또한 좌목의 기재 순서에서 설월당본의 경우 갑인생(1614)인 張舉이 나이 순서에 맞게 19번째에 있으나 이 개인본 『三清洞道會畫帖』에는 나이 순서에 맞지 않게 경신생(1620) 安斗徵의 다음인 22번째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 기입 순차는 다음 소개할 모사본 『三清洞道會圖帖』도 동일하다.

39) 대구의 경매에 출품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매 출품 사진을 통하여 자료를 확인하였다.



<그림 2> 개인 소장본 『三清洞道會圖帖』의 계획도

3.1.3 『三清洞道會圖帖』

이 책은 계명대본(동산도서관)으로 표지에 篆書로 ‘三清洞道會圖帖’이란 제목과 ‘關逢敦胖仲夏摹寫’라는 제작 연대가 쓰여 있어 갑오년(1894) 5월에 모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이면에는 張譽이 서울 삼청동에서 道會를 연 사실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본문은 계획의 개최 내용을 적은 洪汝河의 ‘三清洞道會圖帖序’가 3면에 걸쳐 행서로 적혀 있고, 계획 장면을 그린 그림이 2면에 그려져 있으며, 이어 ‘會案’이란 題下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참석자 명단의 기재 순서는 개인본과 같이 張譽이 22번째에 기재되어 있어 19번째에 기입된 설월당본과 다르다. 좌목 다음 장에는 모사 경위를 적은 宋鴻來(1866-1953)의 발문이 한 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모사본의 그림은 원본에 비하여 옅은 색으로 색감도 떨어지고, 대체로 원본의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교하게 모사하지 못하고 사물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미적 예술성이 없이 행사 자체의 시각적 기념 그림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본은 이보다 140여 년 이전의 것인데도 이보다 색이 선명하고, 가운데에 타원으로 둘러앉은 참석자와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모사본은 2-3그룹씩 엮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본의 소나무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두 그룹씩 양쪽으로 크게 그려 소나무 아래에서 계획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본과 많은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장씨 집안의 원본 전존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 원본에는 없는 계획 개최의 내용을 담은

홍여하의 서문을 비롯하여 모사본 제작의 경위를 담은 송홍래의 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원본 계획도첩의 제작은 물론 모사본 제작 경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 계획첩을 매개로 한 후손 간의 소통과 교류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전하는 ‘三清洞道會帖’은 위와 같이 원본 2종과 모사본 1종 등 모두 3종이며, 다른 계획첩과 달리 참석자의 문집 등 여타 문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洪汝河의 ‘嶺南道會契帖圖序’가 洪汝河의 『木齋集』과 張舉의 『南坡集』에, 송홍래의 발문도 그의 『晦川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3> 摹寫本 『三清洞道會圖帖』의 계획도

3.2 제작과 전승

3.2.1 『三清洞道會圖帖』의 제작

이 첩은 좌목을 보면 모두 고향이 경상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동향계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배경, 제작과 전승에 대해서는 홍여하 서문, 설월당본의 목서 기록, 이구징의 서문을 통해서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다. 홍여하의 『嶺南道會契帖圖序』에는 道會의 취지와 道會圖帖의 제작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뒤에 객관에서 해후한다면 악수를 하고 옛정을 펼치면서 기쁨이 마치 평소와 같으며, 窮達과 親疏로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인정이 반드시 이르러서이지 유독 우리 영남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에 평소의 모임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후세에 전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갑오년(1654) 겨울에 영남의 여러 군자들이 삼청동에서 도회를 열었는데, 벼슬아치 15인과 유관을 쓴 사람이 11인이었다. 인하여 그림을 그리고 아래에 차례대로 이름을 적어 첩을 만들었다. 나는 경저에 있었으나 와병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여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듬해를 지나 병신년(1656) 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와 있었는데, 安斗徵과 李英甲이 그 圖帖을 소매에 넣어와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비로소 펼쳐 읽으니 여러 군자들의 문체와 풍류가 완전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전부터 말석이라도 참석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는데, 권 머리에 이름이라도 걸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에 몇 마디 말을 기록해 돌려보낸다.”

이 서문은 행사가 있고 1년여가 흐른 뒤에 흥여하가 고향에 있을 때 각각 進士와 新進士로 행사에 참석하였던 안두징(용궁)과 이영갑(예천)이 들고 온 계획첩을 본 후에 남긴 글이다. 이 서문을 통하여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향 출신들은 가난하고 궁색하든, 지위가 높고 귀하든, 친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人情이 이르게 되어 평소의 모임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려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 계획도 또한 동향 출신들의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임의 배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어 타향에서의 동향 출신의 친목 정도로 이해된다.

한편, 설월당본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甲午九月初六日會于三清洞’라는 기록과 참석자 가운데 당해 사마시 합격자임을 나타낸 ‘新進士’, ‘新生員’으로 신분을 표기한 사람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654년은 식년시가 있던 해였다. 1654년의 식년시 일정을 보면, 『甲午式年司馬榜目』에 사마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出榜은 8월 12일, 임금이 합격자에게 합격증(백패)을 증여하는 放榜은 9월 5일이었 다.⁴⁰⁾ 사마시 합격자들이 국왕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다음날 삼청동에서 새로 생원·진사가 된 사람들 을 축하하기 위한 道會를 개최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경복궁과 가깝고 북촌과 연결되어 있는 삼청동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다양한 계층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휴식과 예술적 교류 가 있었던 문학 창작지였다.⁴¹⁾ 문과의 합격자 발표일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654년 10월 1일이었 다.⁴²⁾

1654년 식년시의 과거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문과 급제자 34인 가운데 영남 출신은 안동 출신 柳經立(장원) 등 15인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었다. 사마시는 200인 가운데 39인(생원 20, 진사 19)으 로 2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합격자 가운데 柳經立은 문과와 사마시(생원)에, 洪汝河는 문과와 사마시(진사)에, 權迪·金啓光·宋世弼 3인은 사마시(양시)에 합격하여 중복을 제외하면

40) 『甲午式年司馬榜目』 題目註에 “初場八月初七日 終場同月初九日 出榜同月十二日 放榜九月初五日”의 시험 일정 표기.

41) 남은경, “문헌으로 본 삼청 지역 -三清洞 소재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9(2012), 262.

42) 『갑오식년문무과방목』에는 시험 일정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국조방목』의 해당 문과에 “同年十月初一日式年榜”이라 하여 10월 1일 출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도 1654년 10월 4일 기사를 보면 “典籍單柳經立, 司饗直長單李馥, 司宰直長單呂聖齊, 掌樂主簿單李挺完 以上新及第”라 하여 신급제자 가운데 문과 3인과 무과 1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일이 확인된다.

1654년 식년시에서 영남 출신은 모두 49인이 합격하였다. 문과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동년 10월 1일이므로 同道會가 열린 9월 6일에 문과 합격자는 없었다. 따라서 문과 급제자를 제외하고 영남 출신 사마시 합격자는 36인이 되는데, 그 가운데 權迪 등 양시 합격자 2인을 포함하여 5인이 三清洞 同道會에 참석하였다. 이들 5인의 신분에 모두 ‘新生員’ 또는 ‘新進士’로 표기하여 당해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36인의 합격자 가운데 5인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합격자 환영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식년 문과 일정이 있어 식년시 시험 일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고, 계회도에서 ‘新進士’로 복장을 달리한 사람을 별도로 그린 점이나 도회 참석자 26인을 기준으로 하면 5인은 높은 비중이고, 당해 합격자 5인을 포함한 관직이 없는 사마시 합격자가 11인 점 등으로 볼 때, 사마시 합격자 환영은 행사의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행사에 진사로 참석하였던 李耆徵의 『竹軒集』 수록 『三清洞同道會契帖後序』에서 확인되며, 계회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계회는 李廷機가 앞장서 발의를 하고 諸員이 모두 수락한 것이다. 이전부터 삼청동에서 新榜例를 가졌는데, 同道 출신이 모인 것은 今日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회원이 題名을 한 후에 계첩을 만드는 일은 모두 병조좌랑 權穆으로 의견을 모았고, 현직에 있는 관원이 각각 힘에 따라 서로 돕기로 약속하였는데 호조의 물력이 他曹과 달랐기 때문이다. 당일 새로 합격한 사람은 다만 4인이 참석했는데, 성균관에 살지 않는 사람은 멀어서 오지 못하였다. 모인 사람 가운데 술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았다. 회원 중에 홍인량, 곽후창, 권극휴, 이영갑, 권적, 김충, 이만녕은 서로 이어 대과에 급제하여 顯官에 이르렀고, 나 역시 홍인량, 곽후창, 권극휴와 함께 1657년 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였다. 지금 우연히 상자를 열어 이 계첩을 보았다. 당일 회원들은 서로 마주 대하고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인데, 오직 나만 홀로 있으니 섭섭한 회포를 어떻게 말할까?”

위의 서문은 삼청동 동도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해 준다. ① 모임의 시작은 성균관 學諭(종9품) 李廷機가 발의하여 시작되었고, ② 삼청동은 이전부터 과거 합격 축하연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동도회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③ 참석자 명단 작성 후에 계첩 제작은 호조좌랑 權穆이 맡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각각 형편에 따라 도왔으며, ④ 새로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이 적은 것은 성균관 인근에 있지 않아 멀어서 오지 못했으며, ⑤ 필요한 음식과 술을 참석자 다수가 가지고 왔으며, ⑥ 이 글을 쓴 이구정 자신은 계첩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보고서 옛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1654년 9월 6일에 삼청동에서 영남동도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일반적인 同鄕契의 의미를 넘어 당해 사마시에 합격한 동향 출신을 환영하는 의미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마시 합격은 국가로부터 문학 또는 경학으로 사대부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그런 동향 출신 인재가 공식적으로 한양에 입성할 명분을 얻었다는 점이며, 먼저 진출한 동향 선배 관료들의 축하와 격려 모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2 摹寫本の 제작

계회첩의 제작은 행사의 마무리와 함께 權穆의 주관으로 제작하였으며, 참석자가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유명인의 글을 받아 추록하기도 하고, 원본이 없어지게 되면서 모사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1894년 제작된 모사본은 바로 그러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모사본에는 원본에 없는 홍여하의 서문과 新進士 宋世隆의 후손 송홍래가 모사본을 제작하면서 작성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모사본의 제작은 ‘道會帖’을 보존하고 있지 않던 후손가에서 영남의 名儒와 교유했던 선조의 유물을 다시 제작하여 전하고자 하는 가문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송홍래의 발문은 그의 문집인 『晦川先生文集』에 원본보다 더욱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모사본의 제작 경위와 계회도 장면에 대한 묘사가 수록되어 있다.

“宋寅漢이 그림[圖] 1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三清洞道會圖帖인데, 지금 다행히 옥산의 張氏家에서 오래도록 보관해온 것이다. 나의 8代祖 宋世隆(1610-?)이 여헌 선생(장현광 ; 1554-1637)을 따라 학문을 배워 165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중략)… 嶺中の 鴻碩[석학]인 張輿·李廷機 등 제현과 더불어 삼청동에서 도회를 열었는데, 관원과 유관 등 모두 26인이었다. 인하여 그림을 그리고 왼쪽에는 성명을 기록하여 남겼으며, 홍공(홍여하)이 서문을 지었다. 바라건데 우리가 다시 그림을 모사하고 글씨를 써고 또 그 말미에 지문을 쓰자’고 하였다. 그 그림을 살펴보면 23현은 각각 禮冠을 쓰고 순서대로 앉아 있고 그 아래에 靑衫幘頭를 하고 별도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곧 新進士 3현이다. 그 앞에 비파, 생강, 북춤 연주자, 무릎을 꿇고 잔을 올리는 자, 주변으로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며, 좌우에는 淸流와 奇石, 孤松과 老柳가 뚜렷하여 실물과 다름이 없다.”⁴³⁾

모사본의 제작은 송인한이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張輿의 후손가에 보관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선조가 영남의 제현과 함께한 계회첩을 설명한 후 새로 제작하고 말미에 발문을 쓰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으며, 발문은 송홍래가 작성하였다.

3.3 수록 내용

『三清洞道會圖帖』은 후대 추록을 제외하면, 그림과 좌목으로만 구성되었다. 좌목은 한 사람의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한데, 그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설월당본 수록 그림은 삼청동의 술밭이라는 자연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자연과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람은 모임의 주인공인 26인을 중심에 타원형으로 배치하되, 갓을 쓴 23인과는 간격을 두고 푸른 옷에 복장을 달리한 3인을 그렸다. 이들은 당해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타원의 안에는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참석자는 각각 술잔을 들고 있다. 춤추는 사람 두 명이 타원의

43) 宋鴻來, 『晦川先生文集』, 『書三清洞道會圖帖後』.

아래 부분을 잇듯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연주하는 악공이 세 사람 있다. 악공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상 위에 음식과 술을 준비하거나 이를 나르는 사람이 4명 있고, 중간과 좌우측 아래에는 참석자가 타고 온 말을 잡고 있는 마부 9명과 말 5필이 있다. 행사의 주인공은 윗부분 공간에 그려지고, 시종을 들며 이를 보조하는 무리들은 그보다는 아래에 배치하고 있다. 자연은 상단에 세 그루씩 엮혀 있는 소나무 그림이 네 무더기 있고, 좌우의 하단부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풀의 언덕을 흐르는 계곡을 표현하였으며, 언덕에도 소나무 무더기를 그리고 있는데, 좌우에는 크게 하단에는 작게 두 그루씩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삼청동 어느 곳의 술밭에서 주인공 26인이 모임을 가지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개인본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타원으로 둘러앉은 참석자의 가운데에서 술잔을 올리는 사람의 위치가 다르고, 마부와 말이 6명 2필로 생략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참석자 정보가 기재된 좌목에는 현직 관료 12인, 전직 관료 3인 등 전·현직 관료 15인과 당해 사마시 합격자 5인을 포함하여 관직이 없는 사마시 합격자 11인의 정보가 신분(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출신지 등 6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⁴⁴⁾

<표 8> 『三清洞道會圖帖』 수록 명단

	제명록 수록 정보						추가 정보				
	신분	성명	자	생년	본관	출신	나이	품계	호	과거	저술(간행년)
1	活人別提	安弘靖	靖爾	1595 乙未	順興	豐基	60	6품		생1651	-
2	司僕主簿	蔡以恒	汝久	1596 丙申	仁川	咸昌	59	중6품	五峯		실기(1867)
3	前察訪	金玜	子鳴	1596 丙申	義城	青松	59	중6품			-
4	進士	洪仁量	德宇	1599 己亥	南陽	義城	56			진1646/문1657	-
5	奉常僉正	金光宇	子晦	1600 庚子	順天	柒谷	55	중4품		문1624	-
6	刑曹正郎	郭弘址	子久	1600 庚子	玄風	高靈	55	정5품	太虛亭	진1624/문1635	문집(필사)
7	工曹正郎	李廷相	立卿	1602 壬寅	永川	義城	53	정5품		생1630/문1638	-
8	前正郎	金沍	汝定	1606 丙午	義城	醴泉	49	정5품	不求堂	생1633/문1639	문집(1867)
9	新生員	宋世弼	公彦	1607 丁未	冶廬	星州	48			양시1654	-
10	典牲奉事	韓時重	汝任	1608 戊申	淸州	晋州	47	중8품		진1648	-
11	進士	郭後昌	興叔	1608 戊申	玄風	大邱	47			진1646/문1657	-
12	生員	權克休	時遠	1608 戊申	安東	咸昌	47			생1652/문1657	-
13	進士	李壽徵	大年	1609 己酉	慶州	慶州	46		竹軒	진1639/문1657	문집(1911)

44) 조선시대 좌목에 일반적으로 기입되는 기재 항목은 품계, 관직, 성명, 자호, 생년, 본관을 기본으로 하며 모임의 목적에 따라 항목의 가감을 보인다. 동향계회도의 경우 모임의 배경이 출신이므로 출신지가 추가적으로 표기되었다. 반면, 관청이나 도감 계회도 등 관원으로 참석한 계회의 경우는 참석자 개인 정보에 과거 합격 정보, 부친에 대한 정보(품계 관직, 성명)도 기입되었다. 이는 개인차원보다 가문의 일원으로 공적 차원에서 참석했다는 의미가 된다. 과거 합격자 명부인 방목에 父, 雁行, 부모 구존 여부 등이 함께 들어가면서 개인을 파악할 때 가문 차원이나 공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모임의 공통점이 동방, 동향 등 관원 자격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일 경우는 부친의 정보 등 가문이나 과거 합격 정보 등 공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에 한정되는 정보 정도가 수록되고 있다.

	제명록 수록 정보						추가 정보				
	신분	성명	자	생년	본관	출신	나이	품계	호	과거	저술(간행년)
14	新進士	宋世隆	公輔	1610 庚戌	冶爐	星州	45			진1654	-
15	刑曹佐郎	申瀚	景藏	1611 辛亥	平山	仁同	44	정6품		진1635/문1646	-
16	權智學諭	李廷機	子愼	1613 癸丑	永川	義城	42	종9품	漫翁	양시1635/문1648	문집(1915)
17	刑曹佐郎	金以載	仲厚	1613 癸丑	義城	尙州	42	정6품		진1633/문1648	-
18	禮曹正郎	金堯欽	欽之	1614 甲寅	咸昌	榮川	41	정5품	乖菴	생1642/문1649	-
19	戶曹佐郎	權穆	泰如	1614 甲寅	安東	星州	41	정6품		생1639	-
20	長興直長	柳埴	厚甫	1615 乙卯	文化	善山	40	종7품			-
21	進士	安斗徵	景樞	1620 庚申	順興	龍宮	35			진1652	-
22	前參奉	張泉	聖源	1614 甲寅	仁同	仁同	41	종9품	南坡	생1642	문집(1868)
23	新進士	李英甲	善鳴	1622 壬戌	慶州	咸昌	33		野翁	진1654/문1660	실기(1937)
24	新生員	權迪	啓余	1626 丙寅	安東	醴泉	29		鳩谷	양시1654/문1660	문집(1941)
25	進士	金璫	明寶	1633 癸酉	光州	醴泉	22		迂軒	진1652/문1660	문집(1960)
26	新進士	李萬榮	仁老	1610 庚戌	星山	醴泉	45			진1654/문1660	-

신분 표기는 관직이 있는 경우 품계 없이 관직만, 사마시 합격자는 합격 신분을 표기하였다. 관원의 품계는 奉常寺 僉正 김광우가 종4품으로 가장 높고 張泉·李廷機가 종9품으로 가장 낮은 가운데, 5품이 4인, 6품이 6인, 7품과 8품이 각 1인으로 분포되어 있다. 六曹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형조·예조·공조·호조의 銓郎이 전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실무자급 관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었다.

사마시 합격자 11인 가운데 송세필·송세용·이영갑·권적·이만영 등 5인은 ‘新’을 덧붙여 ‘新進士’ 또는 ‘新生員’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5인 가운데 양시에 합격한 송세필과 권적은 동일하게 ‘新生員’으로 표기하였다. 이들 가운데 이영갑·권적·이만영은 1660년 나란히 문과에 급제하여 사마시와 문과에 동기로 인연을 맺었다. 그 이외 생원·진사 6인의 합격 연도를 보면, 이구징(경주)은 1639년, 홍인량(의성)·곽후창(대구)은 1646년, 권극휴(함창)·안두정(용궁)·김충(예천)은 1652년이다. 李久徵은 호조좌랑으로 참석한 權穆(성주)과 사마시 동기이고, 홍인량·곽후창은 이구징·권극휴와 함께 계회 3년 뒤인 1657년에 나란히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김충도 1660년에 문과에 급제하는 등 6인 가운데 5인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참석자 26인은 모임의 성격이 사마시 합격자 축하를 겸한 동향계회인 만큼 모두 출신지가 영남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출신지 분포를 보면 예천 4인, 성주·의성·함창 각 3인, 인동 2인, 그리고 경주·고령·대구·상주·선산·영주·용궁·진주·청송·칠곡·풍기 각 1인 등 경상도 71개 고을 가운데 16개 고을이며, 대부분 낙동강 인근의 현재 경북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참석자 가운데 문집을 남긴 사람은 곽홍지, 김왕, 이구징, 이정기, 장학, 권적, 김충 등 7인이고, 이영갑은 실기가 있으며, 간행 시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중반까지로 나타나고 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동향계회 결과 제작된 同鄉契會帖에 대하여 『三清洞道會圖帖』을 중심으로 계회첩의 제작 배경과 방식, 전존본 현황과 전승 방식, 수록 인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향계회첩은 서울에 있던 同鄉 출신 관원과 생원·진사들이 모임을 가진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며, 座目을 기본으로 서·발문, 계회도가 추가되었다.

둘째, 동향계회첩은 시기적으로 1598년의 『七松亭契會圖』부터 1656년의 『終南同道會題名錄』까지 주로 17세기를 중심으로 원본, 모사본, 문집·실기 등 문헌 편입의 방식으로 전존본 7종 22점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원본은 『嶺南同道會帖(1601)』 1점, 『三清洞道會書帖(1654)』 2점,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2점이고, 모사본은 『七松亭同會圖(1598)』 2점, 『同道會帖(1634)』·『契會圖(1637)』·『三清洞道會書帖(1654)』이 각 1점이며, 나머지는 문집 등 문헌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계회도가 수록된 것은 4종 8점인데, 원본은 『三清洞道會書帖(1654)』과 『終南同道會題名錄(1656)』 각 2점, 모사본은 『七松亭同會圖(1598)』 2점, 『三清洞道會圖帖(1654)』과 『契會圖(1637)』 각 1점이다.

셋째, 『三清洞道會圖帖』은 1654년 식년시에서 국왕이 사마시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수여하는 放榜日 다음 날인 9월 6일에 사마시에 합격한 동향 출신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동향계회 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 계회에는 權迪 등 사마시 합격자 5인을 포함하여 영남 출신 전·현직 관원과 생원·진사 등 모두 26인이 참석하였으며, 삼청동에서 모임을 가진 후에 호조정랑 權穆이 현직 관원들의 도움을 받아 계회첩 제작을 맡았다. 현재 원본 2점과 1894년 제작된 모사본 1점이 전하며, 모두 계회도가 있다.

넷째, 계회의 개최 배경은 대체로 동향 간의 친목을 통한 동향 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 가운데 동향 출신의 謝恩使 임무 완수 후 무사 귀국 축하, 동향 출신 과거 합격자 환영, 동향 관련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직접적인 배경도 확인되었으며, 개최 장소는 장악원 등 관아, 삼청동 등 야외, 개인의 집 등 다양하였다. 계회첩의 제작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1인을 선정하여 제작을 맡겼고, 비용은 봉급을 내는 등 참석자가 분담하였으며, 서문은 제작자가 작성하였다. 좌목의 기입은 출생 순서대로 신분(관직), 성명, 자를 기본으로 하여 출신지, 생년, 본관, 호, 품계가 가감되었는데, 동관·동방계회에서 보이는 부친의 인적 사항, 본인 급제 이력 등이 없이 개인 정보만 기술된 점이 특징이다.

다섯째, 계회 참석자는 모두 전·현직 관원이나 사마시 합격자들로 관원의 품계는 2품부터 9품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주로 5품 이하 실무자급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17세기 초반의 두 차례는 문·무관이 함께하였으나 그 이외는 문관들의 모임이었다. 참석자들의 출신 고을은 경상도 71개 고을 가운데 28개 고을이며, 연인원 141인 가운데 영주가 23인으로 가장 많고, 상주 15인, 성주

11인, 함창 10인, 대구·예천 각 9인, 고령 7인, 안동 6인, 선산·용궁·풍기·의성·함천 각 4인 등의 순이며, 주로 고령에서 영주까지 경북 지역 낙동강 주변 고을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여섯째, 참석 빈도는 두 차례가 가장 많은 빈도로 權淳·金榮祖·金應祖·金孝先·都愼與·柳仲龍·閔希顏·朴廷蓍·徐忭 등 9인이고, 金榮祖·金慶祖·金念祖·金應祖, 都愼修·都愼與, 李民歲·李民寔, 朴檜茂·朴縱茂, 李廷相·李廷機, 曹希仁·曹友仁 등은 형제이며, 金大賢과 金榮祖 형제, 李民寔과 李廷相 형제, 姜翼文과 姜大遂, 李宗文과 李之華는 부자 관계로 동도회 참석자는 가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면이 있었다.

동향계회는 17세기 계회의 다양화 흐름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사된 契會帖 7종은 모두 유독 영남 출신 관료와 생원·진사들의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임진전쟁 이후 전쟁 공로나 과거 시험 등을 통해 다수의 영남 출신이 관직에 진출하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으로 한양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 지역 독립성이 있었으며, 모임에 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경북 지역 출신으로 퇴계를 중심으로 한 문인 학맥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모임이 다수 개최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향후 영남 이외 지역의 동도회 여부와 현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정화. “寒沙 姜大遂의 同道會帖과 交遊.” 『선주논총』 12집(2009). 75-108.
- 노기춘. “德谷 洪鍾韻의 『己卯司馬同年契帖』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권 1호 (2012. 3). 399-415.
- 박정혜. “16-17세기의 사마방회도.” 『미술사연구』 16집(2002). 297-332.
- 박정혜.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한국학』 29권 2호(2006). 239-286.
- 오승환. “<辛亥生甲會之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92집(2016). 29-54.
- 윤진영. “松澗 李庭檜(1542-1612) 所有의 同官契會圖.” 『미술사학연구』 230집(2001). 39-68.
-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2004.
- 윤진영. “안동 지역 문중소장 계회도의 내용과 성격.” 『국학연구』 4집(2004). 239-277.
- 윤진영.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新參禮와 契會圖.” 『역사민속학』 18집(2004). 135-164.
- 홍선표.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미술사논단』 36집(2013). 7-31.
- 한국국학진흥원. 『만날수록 정은 깊어지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접속일 2020.8.19.]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접속일 2020.8.19.]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8.19.]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ong, Sun-pyo. 2013. "Early Joseon Gyehoedo (Association Gathering Paintings) in Overseas Collections." *Art History Forum*, 36: 7-31.
- Kang, Jung-Hwa. 2009. "Dongdohoecheop and Companionship of Hansa Gang Daesu." *Journal of the Seonju Cultural Research Institute*, 12: 75-108.
- Korea Classical General DB. <<http://db.itkc.or.kr>>. [cited 2020.8.19.]
- Oh, Seung-hwan. 2016. "A Study on Gathering of the Same-Aged Scholars Born in the Year of Sinhae."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92: 29-54.
- Park, Jeong-hye. 2002. "Samabanghoedo (司馬榜會圖) in 16-17th centuries." *Journal of Art History*, 16: 297-332.
- Park, Jeong-hye. 2006. "A Scholar-Official Family's History by the Pictorial Documentation: A Study on Album Painting Handed Down in the Kims of Pungsan Family in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Quarterly*, 29(2): 239-286.
- Roh, Ki-chun.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n Gimyo sama tongnyung kyeclub made by Hong Jong Wo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99-415.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http://sjw.history.go.kr>>. [cited 2020.8.19.]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013. *The more we meet, the more affection we get*. Andong: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cited 2020.8.19.]
- Yun, Chin-yng. 2001. "Tonggwan kyehoedo Fomery in the Possession of Songkan Yi Chng-hoe."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30: 39-68.
- Yun, Chin-yng. 2004. *(A) study of Kyehoe-do (契會圖), paintings of gatherings in Chōs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
- Yun, Chin-yng. 2004. "SinChamRyae and Kyehoe-do of Bureaucratic Society of the Ch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18: 135-164.
- Yun, Chin-yng. 2004. "Some Aspects on Kyehoe-do Kept in Descendant Families of Andong District." *Korean Studies*, 4: 239-277.

